

정동영, 국민의당 입당... 정치재개 본격

도내 야권 지형변화 예고

야당 구도 깨뜨릴 파급력 보여줄지가 최대 관심사

'이념충돌' 당길 가능성 이상돈과의 관계도 문제점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의당' 정치재개 선언으로 도내 야권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정복에서 새로운 야권 형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과거 11석 모두를 독식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오래 카운터파트너였던 새누리당 등 야당 구도를 깨뜨릴 만한 파급력을 과연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정 전의원의 국민의당 합류로 경쟁구도가 만들어져 긍정적인 변화가 가져올 것인 평가도 공존한다.

정가 관계자는 "특정지역 패권주의는 당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체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며 "전북의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의당 합류는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과 예비후보들은 정 전의원의 국민의당 합류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일부 선거구의 경우 정치 신인들로서 도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표(票)의 확실성 측면에서라도 정 전의원의 역할론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전 의원이 이러한 책임의식 때문이라도 당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 전 의원 역시 '전북정치 복원'과 '호남정치 부활'을 천명한 이후 국민의당 후보들과 행보를 같이 하는 모양새다.

정 전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후 첫 주말을 맞아 완산갑 이기동 예비후보 사무실과 남원순창에 출마한 이용호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당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순창군 북촌면 비석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정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했다.

또한 지난 19일 오후에는 이기동 예비후보와 남부시장 아시정과 청년들을 방문해 힘을 실어줬다.

현재로서는 정 전 의원이 총선 막판까지 후보들과 행보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수와 진보 진영 인사들이 혼재하고 있는 국민의당 사정상 누구보다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정 전 장관의 영입이 자칫 이념충돌이라는 불꽃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외의 관계 설정도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지난 19일 "합리적 진보주의의 자로서 그 노선을 걸어왔다. 이제는 과거 30m쯤 떨어진 공중에서 정치를 해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장에서 내려가 땀 흘리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그리고 정동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옆에 섰을 뿐"이라며 이념과 노선 충돌 우려를 차단하기도 했다.

도내 한 관측원은 "한철승 의원이 정 전 의원이 머무르고 있는 순창까지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당도 이번 총선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이번 합류로서 정 전 의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됐다. 좌우

균형자로서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전북정치와 호남정치를 복원할지 두고 불일치"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선거구 획정 오늘 해결 '죽목'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친 뒤 22일 다시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합의안을 여야가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현재 오는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로 견해차가 커 결과물을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주말 동안 야당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당내의의를 거친 뒤 월요일(22일)쯤 다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과 20일 분회의를 열고 최대한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입장이지만 서로의 이견 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에도 심야 회동을 갖고 '최종 답판'을 짓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야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성주 기자



지난 18일부터 2일간 2016 무주군 체육협의회 주최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한 선수기 스키노보드를 타고 질주를 보이고 있다. /인진수 기자

본사 주최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성황'

선의의 경쟁... 깔끔한 진행 '호평'

스키 12·스노보드 4부문 나뉘어 실력 겨뤘 각 부문 1~3위에 메달·부상 등 수여 '격려'

새하얀 설원위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스키·스노보드 결전이 끝났다.

지난 18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개막된 2016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는 작년과 비교 2배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13면·16면)

작년에 첫 선을 보인 1회 대회에 이어 2번째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11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스키 12부문, 스노보드 4부문으로 나뉘어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다양한 연령층을 세심하게 나누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했던

작년과 동일하게 초등부 저, 고, 중 등부, 고등부, 대학청년부, 중년부 등 다양한 부분으로 대회가 이뤄졌다.

이번 대회는 모든 선수에게 1차, 2차시기를 부여해 2번의 기회 중 우수한 기록을 베스트 기록으로 선정해 순위를 판가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심판진은 무려 220회 이상의 시기 중에도 단 한 번의 중단도 없는 깔끔한 진행과 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하고 엄격한 진행을 보여줬다.

각 부문 1위에게는 트로피와 메달, 푸짐한 부상이 수여됐고 2위, 3위에게도 트로피를 제외한 메달과 부상이 수여됐다.

대다수의 선수들은 "겨울시즌 중

안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좋다"며 "특히 무주덕유산 리조트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의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좋은 대회가 진행될 것 같다"며 호평을 보였다.

대회장을 맡은 전주매일신문 조봉성 대표는 "아무리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치른 선수들과 전주매일신문사 임직원, 전북스키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매년 발전하는 대회를 만들어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에서 펼쳐지는 대회 중 으뜸대회로 만들어 가겠다"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스키동호인 저변 확대 및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전주매일신문사 주최하고 전북스키협회와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주관하며 전북도와 무주군,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 리조트가 후원했다. /김민근 기자

▶ 매일 INDEX

- 2면 전북도민 행복도 수준 전국 2위
- 3면 더민주-국민의당 공천경쟁 접화
- 6면 대한방직, 도청 옆 전주공장 매각 최초

꿈을 향한 길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